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8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8월 17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하반기
큰 싸움이
온다!

국민 공격하는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권을 잃을 각오”로 해야한다며 호들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은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 빼든 카드가 정규직 국민들 등골빼서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들 주머니 털겠다는 선포였다.

자본은 신났다

정권이 하반기에 노동자들을 공격하겠다고 천명하자 자본들은 신이 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아끼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내년부터 그룹사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노조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이다. 모든 이익을 재벌이 독점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다면 사내유보금만 더 늘어날 뿐이다. 더군다나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곳 중 177곳(46.8%)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효과도 크지 않다.

민주노총이 희망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노총을 협상 자리로 끌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저지된 것도, 한국노총이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민주노총의 투쟁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은 28일~29일 1박2일 상경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힘을 한 번 더 집중하자!

금속노조 임원선거 돌입!

금속노조 9기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노조는 17일(월) 임원선거 총회소집 공고를 내고 24일(월) 17시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지부임원 선거는 24일(월) 공고하여 28일(금) 17시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후보등록 직후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9월 13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9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이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 결정이 안될 경우, 2차투표는 9월 21일(월)~23일(수)이며 3차 투표는 10월 6일(화)~7일(수)이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1일(금)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이 때, 산별기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조합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임원 선거는 노조, 지부, 지회가 동시에 치러진다. 특히 박근혜 정권 말기 투쟁을 이끌어갈 중요한 임무를 맡을 지도부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튼튼한 투쟁의 지도부를 만들 수 있다.

미타결 사업장 집중 투쟁

* 일시: 8월 19일(수)
* 장소: 코스모링크

청주시노인병원 집중집회

* 일시: 8월 20일(목) 17시
* 장소: 청주시청 앞